



오승우 화백 개인전 2월 26~3월 10일 한가람미술관서



오승우 화백의 '심장생' 작품

동양적 주제인 심장생 서양화법으로 표현

서양화가 오승우(78·예술원 회원) 화백 개인전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오 화백이 약 7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불교장생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적인 '심장생'이다. 그동안 산과 사찰 건축물 등을 주제로 작업 해온 그의 창작은 '심장생'에 큰 매력을 느꼈는지 수년째 여기에 머물며 몰입된다.

오 화백의 심장생도는 흔히 전통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색감의 그림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림의 해석과 미적 감각이 가미된 서양화 풍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오 화백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심장생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전통적이면서도 자주 그림의 소재로 화단에

서 등장하지 않아 더 큰 매력을 느껴 몰두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그는 국내 서양화단의 거장이자 불교적 작가인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이자 작고한 오승운(1939~2006) 화백의 형으로, 호남 미술 명문가 출신이다. 또한 두 아들들도 종경화가(오병욱)와 조각가(오상욱)가로 활동하고 있는 등 명실 공히 미술가 가족이다.

오 화백이 화면에 펼치는 심장생에는 무욕이 느껴진다. 특히 자연과 함께 하며 수행한 옛 선지식이나 신선들처럼 욕심 내지 않고 사는 마음으로

그러나 오 화백의 심장생은 더욱 ऐसा롭지 않다. 오 화백 특유의 얇은 파스텔 톤으로 빛어낸 심장생은 동양적인 소재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맛을 전해준다. 이번 전시회에서 오 화백은 이런 화법으로 7년동안 그려낸 50여점의 심장생을 선보인다.

오 화백은 "90대에도 작품활동을 한 피카소를 예로 들면서 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인물화를 새롭게 그려보고 싶다"고 창작에 대한 열정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동요 25집' 발매 온 세상 따뜻하게 데워줄 동요 9곡 수록

"겨울 햇살이 드리우는 싱그러운 아침에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열 불하면 우리 법우 모두가 부처님 이예요/ 그리고 예쁘게 두 손 모아 잡자기 전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있는 눈이 오는 날의 법당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모두가 부처님이 예요 중에서)

찬불가로 음성포교를 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25집 CD를 출판했다. 이번 음반에는 '눈이 오는 날'을 비롯하여 '모두가 부처님이예요', '법당의 아침', '겨울 햇살', '싱그러운 아침' 등 9곡이 수록됐다. 또한 후반부에는 반주음악도 실어 놓아 어린이법회



최근 발매한 25집과 11집부터 20집을 묶은 1120음반의 자켓

교재나 겨울사찰 수련회 등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외에도 '좋은 벗 풍경소리'는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어린이법회 의식곡 CD도 함께 선보였다.

이종만 실장은 "그동안 발표했던 찬가찬불가 모든 곡을 홈페이지(budsori.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잘 활용하면 의식이나 법회, 수련회 등을 통해서 찬불가 포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편 풍경소리는 그동안 발표한 11집부터 20집을 묶어 4장의 앨범으로 새롭게 제작해 보급한다. (02)723-9836 김주일 기자

'전통소리와 함께 하는 이색 콘서트' 명동 삼일로 창고극장 2월부터

주로 연극 공연을 선보여온 서울 명동의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우리 전통 소리와 함께 하는 이색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 콘서트는 공연 시작 전 연주곡들과 관객이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즐기는 형태를 취하며, 공연을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월 4일 첫 공연은 가야금 폐스티벌이다. 가야금 이중

주, 사물놀이, 대금 연주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매월 프로그램으로는 정악, 해금, 판소리, 경기민요, 대금, 피리 연주, 정가가 준비돼 있고 퓨전 콘서트(9월)와 송년 콘서트(12월)도 마련됐다.

창고극장 정대경 대표는 "명동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소리를 전해주고 싶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영산재나 법배 등의 소재도 공연 하겠다"고 말했다. (02)319~8020 김주일 기자

박동식의 티베트 사진전

박동식의 티베트 사진전 '열방'이 영광도 세대포 김용환 갤러리에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시된다. 박동식 작가는 여행가 및 수필가로 활동 중이며 글과 사진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작가이다. 사진전과 함께 티베트 여행사(051)816-9500 하성미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5가지튀김



가정에서 많이 먹는 야채 중 하나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93%의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 비타민 A, C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지의 특이한 색은 안토시아닌계 색소인 나스닌(자주색)과 히아신(적갈색)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색소는 지방질을 잘 흡수하고 혈관 안의 노폐물을 용해, 배설시키는 성질이 있어 피를 맑게 합니다.

가지는

통증 멈추게하고 구내염 효과 뛰어난 지방 흡수하는 성질있어 튀김에 적합

가지를 내리고 빈혈 예방과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증을 멈추게 하고 부은 것을 내리게 하는 약효도 있습니다. 특히 구내염에 효과가 있어, 주로 피부의 염증·유선염·종기·피부궤양 등에 쓰입니다. 독버섯을 먹고 중독 됐을 때는 가지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즉석에서 낫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갈증을 그치게 하고 살충작용도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주로 열매가 이용되지만, 약재로는 주로 잎·줄기·뿌리 등이 이용됩니다. 가지는 주로 나물로 많이 먹지만, 지방질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튀김으로 조리해서 먹기에 알맞습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하면 불포화지방산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조직이 연하므로 오래된 금방 물러져 버리므로, 도톰하게 어슷 썬 가지를 튀길 때는 찬물에 잠시 담가둡니다.

가지튀김

재료 : 가지, 두부, 깨소금, 밀가루, 전분가루, 풋고추, 된장

만드는 법

- 1) 가지는 5cm 길이로 4등분 한다.
- 2) 두부는 으깨고 풋고추는 다져 준다.
- 3) 두부와 풋고추, 깨소금을 버무린 다음 된장으로 간을 맞춘다.
- 4) 재료에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3:7 비율로 섞어서 튀김옷을 만든 후 가지에 묻혀 기름에 튀겨낸다.

신비의 주역점서 『초씨역림』, 『초씨역림 384』 전2권 완간

매주 월요일 7시 '대동역학교육원' 031-447-3888

'전2권' 구매하신 분은 '대동역학교육원'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정가 25,000원

『초씨역림 384』는 원전 『초씨역림』의 폐사 중에서 삼 변법으로 점쳤을 때 나오는 64괘 384효를 수록하고 점사를 일일이 상세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초씨역림 384』와 『초씨역림』을 같이 놓고 점쳐 보면 세상만사 길흉을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초씨역림』은 주역 64괘를 다시 통변 64괘 하여 4,096 괘로 완전한 통변을 다한 유일한 비담이다. 『초씨역림』은 폐사 전체를 해독하지 않더라도 끝 구문만을 보면 길흉을 용이하게 관독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도 쉽게 길흉을 점칠 수 있다.

『초씨역림』은 대장작법에 의하여 평생 사주를 연년 세세로 계산하여 일생의 길흉화복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초씨역림』에는 명리학이나 주역, 여타 학문으로 나오지 않는 길흉이 정확하게 나와 세인들을 감탄하게 만든다.

'전국 유명 서점 절찬리에 판매중!'

출판사로 주문하시면 '전2권 60,000원'에 '택배비 본사부담' 배송!

◆도서출판 신지평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004-950578 김중현 / 전화 : 02)338-4168 / 팩스 : 02)6442-4168

소불·인등·영가단위패·LED 연등전구 전문제작

영광불교

▶ 소불(6치, 7치) - 독창적인 상호와 우아한 색채감 - 5,600칸델라의 화려하고 신비한 조형

▶ 인등(관음, 지장) - 초고휘도 LED 전구사용 - 고품격 도금식 인등 인치 - 지등 조명색상 변화가 첨가(신제품)

▶ 영가단 위패(조영식, 비조영식) -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 - LED 전구를 이용한 조명 가능

▶ IS-LED 연등용 전구 (밝기 가능 강화) - 소비전력 0.2W로 기존 전구의 1/10~1/20정도로 절감 - 열이 없어 여름에 설치해도 화재로부터 안전

- 주문 및 상담연락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5
연락처 : 016-567-4979
※ 전국 어디든지 방문 견적해 드립니다.

- 2008년형 신제품 -